

일제강점기 중등교육 여자용 독본에 나타난 부덕(婦德)과 계발(啓發)¹⁾

송숙정(중앙대)

1. 들어가며

1886년에 미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이화학당>이 개교한 이후, 1905~1910년경 조선에는 약 3천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그 중에서 174개가 여학교였다. 초기의 여성교육은 한말의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론을 기반으로 한 민족교육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다. 서구의 천부인권론과 남녀동등권을 바탕으로 하였던 애국계몽기 여성교육의 목표는 장지연의 『여자독본』에서 제시된 바 ‘국권회복’에 동참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여성상이었다. 18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조선 내부에 여권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지만, 초기 여성교육은 국권을 잃은 민족의 자주독립에 기여하고 근대적 가정의 중심이 되는 ‘현모양처’의 양산이라는 목표 속에서 수행되었다. 1900~1910년대 여학생 이미지는 사회 계몽에 앞장서는 선각자로서의 ‘신여성’의 기호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1910년대 민족 국가의 일원이면서 새로운 문명의 개척자이자, 계몽의 주체로서 재현되었던 여학생은 그 수가 늘어나면서 1920년대 이후에 도시 신문화의 주역으로 부상한다. 하지만 1925년 당시 중등 이상의 여학교가 15개 정도에 여학생 수가 3천명 정도로 당시 전체 여성 인구의 0.03%에 지나지 않았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초등학교령 인구 대비 여성 취학률은 20% 정도였으며, 1933년 초등학교에서 전문학교까지의 여학생 총수가 13만 6천명으로 여성 총인구비의 1.2%에 불과하고, 당시 여성문맹자는 92%인 924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의무교육이 시행되지 않았던 식민지에서 특히 조선인 여성들에게 근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이었기에 상급학교 진학자인 여학생의 사회적 위치는 각별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조선 사회에 등장한 신여성의 존재 근거는 그들이 근대적 서구 교육의 수혜를 받은 여성들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²⁾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를 통해 편찬, 발행된 중등교육 여자용 교과서에 담긴 여성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부덕(婦德:부녀자가 지켜야 할 덕행)이란 무엇이며, 그들이 지향하는 계발(啓發:新たな知識や氣付きを与えて、人を教え導くこと)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것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일제강점기 여성에 관한 담론은 다양한 형태로 조명되어 왔다. 주로 당시 발행된 신문과 잡지에 수록된 기사 분석을 통해 여성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김영민(2016)이 있으며, 김수자(2015)는 특히 잡지 ‘신여성(新女性)’의 기사를 쓴 여성기자의 글을 통해 여성담론을 구성해 가는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의 여성기자는 새로운 지식인으로 부각되었으며, 황수연(2021)은 이러한 식민지 지식인의 신여성 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이행화와 이경규(2017)는 이러한 일제강점기 새로운 직업여성을 통해 일제강점

1) 본 발표는 2022년 6월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의 『比較日本學 Vol.34』에 게재된 논문을 재구성하여 발표함을 밝힘.

2) 서지영(2013) 『소비, 노동, 젠더로 본 식민지 근대 경성의 모던길』 도서출판 여이연, pp.94-95

기 직업여성에 관한 담론을 정의하였다. 이 밖에도 이경규(2021)는 일제강점기 여성교육과 가정개량 담론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여성에 관한 담론은 주로 1920년대 ‘신여성’의 등장과 함께 조선에서 새롭게 일어난 사조와 맞물려 시대적 표상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 담론을 고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1920년, 1930년대의 신문과 잡지 등이 아닌 여성들의 실질적인 교육에 관여하는 교과서를 분석하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고 하겠다.

1.3. 연구대상

일제강점기 조선의 중등교육 여자용 교과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일제강점기 중등교육 여자용 교과서

과목	교육령 기	교과서명	발행년도	권수	비고
국어 (일본어)	1차	여자고등국어독본	1920-1922	1-6	1,2,3,4,5
	2차	신편여자고등국어독본	1922-1924	1-8	1,2,3,4,5,6,7,8
		중등교육여자국문독본	1932-1935	1-8	1,2,3,4,5,6,7,8
	3차	중등국어(여자용)*	1938-1943	1-8	1,2,5
조선어	2차	여자고등조선어독본	1924-1928	1-4	1,2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	1936-1937	1-4	1,2,3,4
수신 (일본어)	2차	여자고등보통학교수신서	1925-1926	1-4	1,2,3
	3차	중등교육여자수신서	1938-1941	1-4	1,2,3,4

*중등국어(여자용)은 8권 중 3권만 현존하는 관계로 본고에서는 분석을 생략함

연구대상은 국어독본(일본어)과 조선어독본, 수신서(일본어)로 국어는 제1차 조선교육령기부터 여자용 교과서가 편찬, 발행된 것에 비해 조선어와 수신은 제2차 조선교육령기에 들어서 여자용 교과서가 편찬, 발행되었다. 당시 중등교육 남자용 교과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며, 국어와 수신은 원문이 일본어인 관계로 발표자가 번역했으며, 조선어는 당시의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 실었다.

2. 일제강점기 조선 여성의 중등교육

일제강점기 조선 여성의 중등교육은 조선교육령과 함께 발달하였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는 3년 과정의 ‘여자고등보통학교’가 있었으며, 제2차 조선교육령기에는 5년, 4년, 3년의 ‘여자고등보통학교’가 각 지역의 특성과 사정에 맞게 개설되었다. 제3차 조선교육령기에는 5년 과정의 ‘고등여학교’가 개설되었으며,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는 4년 과정의 ‘고등여학교’가 개설되었다.

각 시기의 조선교육령의 반포와 함께 발표된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을 살펴보면 제1차 조선교육령기인 1911년 10월 20일에 제정한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조선총독부령 제112호)’ 제9조 1항에는 ‘정숙하고 근검한 여자를 양성하는 것은 여학교의 주요한 목적이므로 어느 교과목에 대하여도 항상 이에 유의하여 교수하고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인 1922년 2월 17일에 제정한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조선총독부령 제14호)’ 제8조의 2항에 제시한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선량한 품속을 존중하고, 생도의 덕성을 함양하며, 순량한 인격을 도야하고, 특히 정숙하게 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근검을 존중하는 지조를 두텁게 하고, 나아가 동포집목의 미풍을 기르고 자 하여야 하며, 어느 학과목에서도 항상 깊이 이에 유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3차 조선교육령기인 1938년 3월 15일에 제정한 ‘고등여학교 규정(조선총독부령 제26호)’ 제1장 총칙 제1조에는 ‘고등여학교는 여자에게 반드시 소용되는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국민도덕의 함양, 부덕의 양성에 뜻을 두고 현모양처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중량지순한 황국여성을 양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2조 2항과 6항~8항에는 다음과 같이 그 목적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2. 품성의 도야, 정조의 함양에 뜻을 두고 정조를 중시하며 순량정숙하고 온정자애에 풍부하며 순품미숙을 숭상하고 집에 대한 임무를 중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소지를 습득하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

6. 여성의 심신의 특질을 깨닫게 하고 결혼생활 및 육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게 하여야 한다.

7. 국어의 사용을 정확하게 하여 응용을 자유자재로 하게하며 국어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

8. 각 학과목의 교수는 그 목적 및 방법을 서로 연락하여 보익하는데 힘쓰고 장래 가정의 주부인 모가 되어야 한다는 자각을 촉구시키며 여성의 책무를 이해하게 하고 가정생활상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항상 반복하여 지능의 연마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사회의 진운에 순응하는 황국여성의 양성에 힘쓸 것을 요지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4차 조선교육령기인 1943년 3월 27일에 제정한 ‘고등여학교 규정(조선총독부령 제59호)’ 제1조 각 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체의 본의를 천명하고 황국의 도를 수련하게 하며 지성진충의 정신에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2. 일시동인의 성지를 봉례하여 내선일체의 본의에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3. 황국의 동아 및 세계를 향한 사명을 밝혀 황국여자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게 하고 직분을 다하여 향운을 부익하고 받드는 신념과 실천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4. 학행을 일체로 하고 심신을 수련하게 하여 황국여자로서의 덕조식견과 정조를 도야하고 창조활용의 능력을 양성하며 강인한 체력기공을 연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는 ‘정숙하고 근검한 여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던 것에서 제2차 조선교육령기에는 ‘덕성의 함양, 순량한 성격, 정숙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근검을 존중하는 지조’를 갖는 여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3차 조선교육령기에는 ‘정조를 중시하며 순량정숙, 온정자애’를 갖춘 여성상을 제시하며 결혼생활과 육아, 가정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책무 또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는 ‘황국여자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덕조식견과 정조를 도야하고 창조 활용의 능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각 시기의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은 대등소이하다. 이러한 목적이 교과서에 투영되었을 것이며, 여성의 삶에 관한 담론은 이러한 교육령기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국어(일본어)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 담론

일제강점기 조선의 국어(일본어)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 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여자고등국어독본(1920-1922)

『여자고등국어독본(女子高等國語讀本)』은 제1차 조선교육령기인 1920년에 중등교육 기관인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조선총독부에서 편찬, 발행하였다. 당시에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진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에 맞추어 한 학년에 두 권씩 총 6권이 편찬, 발행되었다.

각 권의 내용 중 여성 담론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3의 제11과 ‘청결’에서는 ‘조선의 일반 부인이 세탁을 여자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심으로 좋은 습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언급이 있다. 이선이(2011)³⁾는 그의 논문에서 근대 일본의 여성잡지 속에 나타난 조선여성의 표상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가 인용한 『부녀신문(婦女新聞)』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어 재인용하였다.

세탁은 하류부인 필수업이며 물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나 한서(寒暑)에 상관없이 세탁을 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흰 옷을 즐겨 입는 이유는 필경 그 집의 부인을 바빠 죽도록 한 것이 일상의 습관이 된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외국인도 있다고 한다. -扶桑生「韓國の婦女子(續)」『婦女新聞』 제75호, 1901.10.14.

물가에서 세탁하는 부인, 다듬이질 하는 소리, 흰옷-이것이 부인의 생활을 표시하는 언어입니다. 그 정도로 종래 조선부인은 세탁이 일과로 날이 새도 겨도 세탁, 세탁 이외에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本島百合子「黎明を迎へた 滿鮮の婦人(上)」『婦女新聞』 제1621호, 1931.7.5.

이처럼 당시 세탁하는 조선의 여성에 관한 글을 잡지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글이었던 이유는 당시 조선의 방방곳곳 어디든 물이 있는 곳이면 세탁하는 부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며, 조선인들이 흰 옷을 즐겨 입는 생활로 인해 여성들에게 고된 노동이 부과되었다고 위의 글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에서의 냉소적인 시선을 외면한 채 교과서에서는 세탁이 여성들의 중요한 임무이며 일상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교육하고 있다.

권4의 제10과 ‘요리’에서는 집안의 주부가 요리를 잘하면 한 가정이 행복하다고 설명하며 맛도 맛있지만 건강을 위해 부엌을 청결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권5의 제11과 ‘부도(婦道)’에서는 ‘올바른 부인의 길은 양처가 되고 현모가 되어 능히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자고등국어독본』에서는 이러한 시기에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과 의무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의 본문이 많은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2. 신편여자고등국어독본(1922-1924)

3) 이선이(2011) 「근대 중국과 일본의 언론매체에서 보이는 조선여성 표상 연구」 『동양사학연구』 116, p.255.

4) 『婦女新聞』은 1900년 5월 10일 후쿠시마 시로(福島四良)에 의해 창간되었다. 이것은 주간지로 당시 유일한 여성신문이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통치 정책이 유화 정책으로 바뀌면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1922년 제2차 조선 교육령에 따라 여자 고등 보통학교 규칙이 여자 고등 보통학교 규정으로 개정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일제는 여성을 학교라는 틀로 끌어 들여 일본인과 조선인이 동화하는 매개체로 적극 이용하려 하였다.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의 보통교육을 시키기 위한 곳으로 부녀자의 덕을 양성하고 국민다운 성격을 도야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 기능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와 같은 설립목적에 맞추어 『신편여자고등국어독본(新編女子高等國語讀本)』는 5개의 과가 끝날 때마다 ‘자습문(自習文)’이 수록되어 있다. 자습문은 수필부터 소설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다양했으며, 내용상의 특징은 여성의 부덕(婦德) 계발(啓發)에 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각 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 제16과 ‘청결’에서 ‘조선의 일반 부인이 세탁을 여자의 중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청결을 사랑하는 일종의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며, 자기의 의복, 신체, 주거를 청결히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집합하는 곳, 또는 통행하는 곳은 각자가 청결히 하도록 마음을 써야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여자고등국어독본』의 권3 제11과의 내용과 유사하다.

권3 제25과에는 ‘여자와 속담’이라는 제목으로 여자와 관련된 속담을 다루고 있다. ‘아내를 잘못 고르면 육십년을 고생한다’, ‘여자는 천하게 키워라’등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일본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담으로 이러한 내용을 조선의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대로 실어 교육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동화정책(同化政策)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여성들은 옷과 머리장식에 소비가 많음을 지적하며 ‘여자의 옷은 목숨 다름이다’는 속담과 ‘시집 갈 딸이 셋이면 재산이 거덜난다’는 속담으로 여성들의 허영을 꼬집었지만 이를 통해 당시의 여성들의 소비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치하는 여성에 대한 반향으로 검소하고 순종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본문은 제18과 ‘부도(婦道)’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의 길은 좋은 아내가 되어, 현모가 되어, 능숙하게 의무를 완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고 여자는 한번 시집가면 두 번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순정을 다하고 부창부수의 길을 잊지말라.

고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을 통하여 당시의 ‘여성상’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양처현모가 되어 남편에게 정조를 지키는 일이 당시에는 여성의 걸어가야 할 길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여자의 화복을 좌우한다고 권8 제11과 ‘여자와 화복(禍福)’에서 말하고 있다.

화복의 원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옛날과 달리 여자의 길을 창창히 열어주어 교육받게 하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고, 또 능숙하게 사회와 교제를 맺게 하고, 혹은 자손을 양육하는 길의 선택을 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본래 여자의 의무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만드는 것에 있고, 선량한 가정을 만드는 여자는 가장 복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 시절은 미래의 가정을 꾸미는데 필요한 지식과 취미를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신편여자고등국어독본』에는 ‘소비하는 여성’에 대한 반향으로 여자의 도리와 의무를 강조하거나 귀감이 될만한 여성상을 들어 그들을 본받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중등교육여자국문독본(1932-1935)

1927년 가을부터 교과서 개정에 관한 조선인들의 요구가 거세짐으로 인해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실정에 맞는 교과서 개정’에 착수한다. 하지만 자금부족으로 인해 계속 연기되고 1930년 3월에 들어서며 보통학교부터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정을 차례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중등교육여자국문독본(中等教育女子國文讀本)』은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1932년부터 조선총독부에서 편찬, 발행한 교과서이다. 4년의 수업연한에 맞추어 1년에 2권씩 총 8권을 학습하도록 편찬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편찬, 발행된 남자용 『중등교육국문독본(中等教育國文讀本)』에는 게재되지 않은 여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3 제1과 ‘무구의 지성(無垢の至誠)’에서는 여자고등보통학교를 다니는 소녀들에게 다음의 글과 같이 권하고 있다.

조신하다고 하는 것은 부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형식에 치우쳐 따뜻한 인간미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지나치게 정을 억누르기 때문에 냉담하고 무감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도덕이 회노애락을 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역시 어느 정도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얼굴색이나 태도로 나타내는 쪽이 인간미도 있고, 정도 들어 교제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녀시절, 처녀시절에는 천진하게, 쾌활하게, 애교있게, 가식적이지 않고, 꾸미지않고, 천진난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한 배려,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열정, 순정, 무구한 지성이 자연적으로 발휘되어 천진난만한 애교가 되고, 사려깊은 예법이 되어 아름다움이 되고, 총명이 되고 따뜻한 인정미가 되어 일부러 구하지 않더라도 만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녀시절에는 ‘조신하게 행동하되 천진난만하며 가식적이지 않고 순수하여라’고 권면하지만 이는 어찌보면 당시 남성이 바라는 ‘여성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다음의 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권5 제2과 ‘숙녀’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다.

숙녀란 무엇일까. 알고 있는 것과는 판연히 다르다. 숙녀라는 말에 해당하는 외국어도 그렇다. ‘젠틀멘’이라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 지지만, 레이디라고 하면 어떠한 것인지 어느 정도 의문을 갖는다. 이것은 남자는 사회에 나가 활동하고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는 것으로 실상이 알려져 있지만, 여자는 어느 정도 뒷면에 숨어 있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젠틀멘도 레이디도 원래 귀족의 존칭으로 사용되었지만 젠틀멘은 지금은 위치의 여부보다는 품성에 무게를 두고 가난해도 품성이 높으면 격을 높여 붙이게 되었다. 레이디도 격을 갖추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은 오히려 품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저 위치에만 연연해 하는 것은 사회가 아직 진보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품성이 날로 진보하면 숙녀라는 말도 나날이 퍼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이 어느 정도까지 퍼지느냐에 따라 사회에서의 여성의 힘을 가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시에는 ‘여성’이라는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를 여성 스스로가 아닌 남성에게 평가받는 시대였으므로 ‘여성상, 숙녀상’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며, 어떠한 개념적인 단어로 고정화시키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교과서에 실린 글들은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며 그들이 생성한 이미지를 여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다음의 권6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권6 제9과 ‘부인과 문학적 교양’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문학, 예술에 대한 교양의 정도는 바로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말을 바꿔 표현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문학, 예술을 애호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고상한 사람이며,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의 향유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학, 예술에 대한 그 사람의 이해와 애호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부인의 경우에서도 물론 진리인 동시에 문학, 예술에 대한 이해와 애호는 다시 말해 부인의 교양과 관련한 한층 더 중대한 것이 된다는 뜻이다.

부인의 인격을 문학적 교양의 있고 없음으로 판단하고 문학적 교양이 없으면 인격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짓는 것은 글쓰이의 편협한 사고를 대변한다. 권8에는 달라진 시대상과 함께 여성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하는 글이 실려있다. 권8 제20과 ‘부인과 경제생활’에서는 시대가 변모함에 따라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된 부인에게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부인의 경제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부인의 경제교육은 너무나도 좁고 얇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의 경제활동은 부인의 본래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정(人情)이 너무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경제의 본의인 합리적인 사고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부인들에게 합리적 생활을 요구합니다. 경제 행동에 대해서는 감정은 억누르기를 당부드립니다. 화폐경제에 의해 현대에서는 결국 돈을 제대로 써 주었으면 합니다. 돈에 감사할 줄 알았으면 합니다. 저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돈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다운 생활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뺨은 소중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뺨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는 바로 전 시기에 해당하는 1922년부터 편찬, 발행된 『신편여자고등국어독본』에서의 여성관과 차이를 보인다. 『신편여자고등국어독본』에는 여성의 ‘머리장식과 몸장식’에 돈을 소비하지 말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정신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라는 내용과 여성에 관한 속담을 통해 남성의 눈이 비친 여성들의 허영을 비꼬았으며 여자의 화복(禍福)은 한 가정에서의 여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현모양처의 도리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시기에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지위의 변화도 교과서 본문을 통해 느낄 수 있으며 ‘일하는 여성,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을 통해 향상된 여성 인권을 느낄 수 있다.

4. 조선어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 담론

일제강점기 중등교육 여자용 조선어독본은 제2차 조선교육령기에 총 2번에 걸쳐 편찬, 발행되었다. 당시는 ‘문화정치’의 시대로 3.1 운동 이후 조선인들의 기존의 교육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 시기로, 동화보다는 민족, 차별보다는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 저급한 교육보다는 고급 교육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⁵⁾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조선총독부에서는 이전과 달리 중등교육 여자용 교과서를 이 시기에 편찬,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여자용 ‘조선어독본’도 이와 같은 연고에서 두 번 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5) 국사편찬위원회(2005)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 열정』, p.310

다음과 같다.

4.1. 여자고등조선어독본(1924-1928)

김혜련(2008)은 그의 논문에서 ‘『여자고등조선어독본(女子高等朝鮮語讀本)』이라는 국어 교과서를 별도로 편찬하면서까지 재구성하고자 했던 ‘식민지 여성’은 어떤 여성이었을까? 식민 통치 전략에서 조선의 여성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조선의 여성이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로서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동화하는 조선인을 길러낼 어머니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한다.’⁶⁾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교과서 편찬 시에 그들이 원하는 ‘국민된 정신’을 함양한 여성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여자고등조선어독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 제4과 ‘허영심’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時의 古今과 洋의 東西를 勿論하고, 女子는 虛榮心이 만타 하얏소. (중략) 要컨대 虛榮心은 사람으로 하야금 專혀 外面을 꾸미는 僞善家가 되게 하고, 時體를 좇는 輕薄子가 되게 하야, 畢竟은 奢侈에 眩惑하야 버리고 마는 것이니, 教育을 바든 淑女나 修養에 쫓잇는 婦人들은, 虛榮心에 對하야 嚴重히 警戒할것이라하오.

이와 같이, 교육을 받은 숙녀나 수양에 뜻있는 부녀들은 허영심에 대하여 엄중히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허영심을 경계하라는 당부이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숙녀’라는 단어 사용과 ‘수양을 갖춘 부인’의 대목이다. 여지껏 조선에서의 여자는 본인의 아이덴티티는 무시당한 채, 한 남편의 아내, 한 집안의 어머니로서의 가치만이 중시되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조선의 여성을 보는 관점이 단순한 노동력의 창출이 아니라 교육 받은 여성, 교양과 지덕을 겸비한 여성이라는 담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받은 여성에 관해서는 제6과 ‘유학가신 언니에게’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일본으로 유학간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러한 담론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언니가 「身體를 健康히 하고, 熱心으로 工夫하야라. 此後로는 女子도 學問이 無다하면 아니된다. 內房에만 蟄居하는 것이 女子된 本務가 아니니라.」하시든 말삼은, 지금 새삼스럽게 胸中에 맺쳐서, 저는 언니 맛나 뵈을 날은 樂이 잇스리라 생각하며, 愉快한 마음으로 工夫에 熱心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존재는 가사에 얽매어 있음을 제14과 ‘가정’을 통해 알 수 있다.

女子는 家庭에 잇서서, 家事를 다사리는 것이, 그의 本分이오. 그런즉 家庭에 對하야 重大한 責任이 업다 할 수업소. 家長이 終日토록 忙게나가서, 事務에 勞力하다가, 저녁 때가되여서, 疲倦한 몸을 끌고 집에돌아와서, 사랑스러운, 妻子를 相對할 때에, 그안해되는 사람이 반가히 迎接하는 일이 업고, 한마디도 慰勞하는 말이업스며, 또子女가 녀해서 울고 잇는것도, 不願하면, 家長의 마음은 果然엇더하겠소. 家庭의平和는 어더보라도 到底히어 들수가 업슬터이오. 家庭의 樂이 업스면, 그마음이 散亂하야, 凡事에 滋味가 업서, 家庭의 風波가 漸漸닐어날것 이오. 그런즉 女子된者는 家庭의 平和와 不和가 恒常自己의 行動에 달린것인줄을 覺寤하야, 朝夕으로 그 本分을 다하며, 그 責任을 完全히 하도록 힘쓰지 아니하면 아니되오.

아울러 제15과 ‘재봉(裁縫)’에서는 재봉이 여자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여자만 느낄 수 있는

6) 김혜련(2008) 『식민지기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p.166.

특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쌍 두쌍 웨매여, 나중에는 一件의 저고리가 되고, 치마가 되나니, 그 完成된 衣服을 들여다볼 때에는, 무엇이라 形容할 수 없는 기분 마음이 일어나오. 이것은 裁縫하는 모든 女子의 同感이라고 말할 수 있소. 다시 말하면, 이 기분은 오즉 女子의 特權이라 할 수맞게 업소.

裁縫하는 女子에게는 이러한 特權이 있는 同時에 重한 責任이 있소. 그것은 裁縫하는 사람이든지, 完成된 衣服을 넘는 사람이든지, 別로 注意치 아니하는 듯하나, 巧妙히 꼭 맞게지는 衣服을 넘을 때는, 그 무엇이라고 形容할 수 없는 爽快한 마음, 이것이 어디만큼 그 衣服을 넘은 사람의 品格, 또는 活動力에 影響이 잇겠다는 일, 그것이 實로 重大한 일이 아니겠소. 野蠻未開地가 아닌 以上에는, 누구든지 衣服을 넘는 것이요. 그 모든 사람의 日常의 精神·品格·起居動作을 左右하는 힘이 此에 잇다하면, 衣服을 裁縫하는 우리들 女子에게는 重大한 責任이 업을 수 업소.

그러나 권4 제1과 ‘신시대의 요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권1에서 언급된 새로운 여성담론의 재고(再考)이다.

第三은 男子만 勤勞할것이아니라, 女子도 勤勞치아니치못할事니, 至今까지는 男子教育만 重히녁엇스나, 新時代에는 第二의 國民을 養育할 重大責任을 가진 女子의 教育도, 가장 重要視하는배니라.

學問이 無한 女子의 手에 養育된 兒童은, 그知能이 他人에게 落下될지며, 迷信에 沈惑한 女子가 多하면, 男子의 活動을 沮害하는 事가 不尠하니라. 女子를 無知沒覺하다하여 蔑視함은 舊時代의 陋習이라. 今後에는, 男子와 同樣으로 教育을 受하야, 世界的偉人을 出産하는 責任을 男子와 分擔하지아니치못할지며, 又今日以後는 一般社會에서 女子의 聰明睿智를 期待하는바가 不少할지니라.

위의 글을 통해서 보면 남녀평등의 논지를 읽을 수 있다. 시대가 바뀌어 남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일하고, 남자의 교육만 중히 여겼으나 여성의 교육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반사회에서의 여자의 총명예지를 기대한다는 문장으로 통해 여성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여자고등조선어독본』에는 비슷한 시기의 국어교과서인 『신편여자고등국어독본』에 비해 독립적이며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신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육의 요구로 쓰여진 교과서이며, 특히 일본의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조선어로 독립적으로 쓰여진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담론의 전개가 가능하였다고 여겨진다.

4.2.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1936-1937)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 (中等教育女子朝鮮語讀本)』은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1936년부터 조선총독부에서 편찬, 발행한 교과서이다. 4년의 수업연한에 맞추어 1년에 한권씩 총 4권을 학습하도록 편찬되었으며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의 내용 중 이전과 다른 새로운 풍조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제9과 ‘의복과 색채’에 드러나 있다.

朝鮮婦人들은, 數百年以來 아모런 變遷 업시, 在來式으로 白衣를 洗濯製服하기예, 모든 時間 모든 努力으로 一生을 虛費한다고 하야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타고 外國婦人보다 衛生的이나 하면, 決코 그러치도 못합니다. 近來 와서 都會地 사람들은, 多少色衣에 對한 觀念을 가지게 되여, 利用하는 이가 잇스나, 全朝鮮人口에 比하면 極少數입니다. 色衣가 適當한 줄 아는 以上, 우리 女子들은 染色 또는 色彩에 對하야, 相當한 研究가 잇서야 하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백의(白衣)’와 ‘세탁’은 예로부터 우리 여성들의 중요한 임무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았고, 위의 글과 같이 조선의 여성들이 색의(色衣)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논지를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5. 수신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 담론

수신교과서의 특성 상 중등교육 여자용 수신 교과서에서는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과 예의범절, 부덕 등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황국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본분을 가르쳤다. 중등교육 여자용 수신 교과서는 제2차 조선교육령기와 제3차 조선교육령기에 두 번 발행되었다. 구체적인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여자고등보통학교수신서(1925-1926)

김순전(2007)에 의하면 ‘『여자고등보통학교수신서(女子高等普通學校修身書)』를 조사해 본 결과 『고등보통학교수신서(高等普通學校修身書)』의 확대된 범위에서의 황국신민화 교육보다는, 현 모양처가 되기 위한 교육과 여성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신여성의 근대적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⁷⁾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권1 제8과 ‘순종’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자가 그 부모의 교훈, 명령에 따르지 않고, 남편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한 집안의 질서와 평화는 결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남의 집으로 시집갔을 때, 어떻게든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면, 가정의 평화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2차 조선교육령 당시에는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순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제15과 ‘말사용’에서는 여성의 기품있는 말 사용을 통해 온량정숙한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자는 온량정숙(溫良貞淑)을 그 미덕으로 삼기 때문에, 진중한 말을 사용함과 동시에 항상 친절하고 기품있는 말을 사용하고 진실로 거친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여자는 움직이면 말이 많아지는데 많이 많은 것은 어쨌든 품격에 상처주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자로서의 본분을 한 집안의 주부와 어머니로서 한정하는 글은 권2의 제3과 ‘자신을 알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자로서 하늘이 맡긴 본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먼훗날 한 집안의 주부로서 가사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엄마로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하늘이 맡긴 본분을 다하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소중한 임무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늘이 맡긴 본분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것은 여자로서 설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조는 전술한 국어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여성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 이유는

7) 김순전, 장미경(2007) 「조선총독부 발간 『여자고등보통학교수신서』의 여성상」 『일본학연구』 2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173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어 교과서와 수신 교과서는 일본어로 되어 있으며 당시 일본에서 출판된 다양한 관찬, 사찬 교과서를 인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시 일본 제국이 전시하에서 일본 여성에게 요구하는 바가 조선총독부가 편찬, 발행하는 교과서에도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신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막중한 임무’라는 것을 여성에게 강조함으로써 한 가정의 주부로서 남편을 수발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 ‘황국신민사상’을 일상 생활에서 주입시킬 수 있는 ‘대리교육자(代理教育者)’로서의 역할을 해내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사항은 제4과의 ‘섭생과 단련’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특히 여자는 훗날 한 집안의 주부로서 가정화락(和樂)의 중심이 되어 한 가족과 자손의 행복을 좌우하는 지위에 서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 훗날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포육하여 양호(養護)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한 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막중한 임무를 견딜 수 있는 강건한 신체를 갖을 수 있도록 평소 단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초는 제15과 ‘공익’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자는 일견 공익을 위한 일과 관계가 적다고 생각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평생 가장 많이 맡는 가사 등의 일로 개량을 도모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할 수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먼 훗날 한 가정의 주부가 되어 남편을 돕고, 근검 절약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금품을 기부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도 모두 여자의 마음먹기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수신서』가 편찬, 발행되기 2년 전인 1923년 일본에서는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일본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불황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근검 절약할 필요가 있고 국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가정의 살림을 맡고 있는 여자들에게 이러한 기부와 협력을 요구하며 이러한 것이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교육하고 있다.

또한, 『여자고등보통학교수신서』 권3 제9과 ‘극기(克己)’를 통해 사리사욕을 극복하고 허영심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다.

여자는 어쨌든 감정에 빠지기 쉽고, 또한 타인의 동정을 기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위험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대개 허영심이 강하다고 합니다만, 이 허영심이 강한 것이 자주 여자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수많은 여자의 죄악에 대해 조사해 보면, 그 유혹이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해 평상시에 사리사욕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혹을 이겨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여자고등보통학교수신서』에는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보다 여성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책무와 본분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고, 무엇보다 강한 행동의 실천을 요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2. 중등교육여자수신서(1938-1941)

김순전(2007)은 ‘『중등교육여자수신서』에서 후방에서의 여성 역할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었는데 여성을 남성과 같이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설정하였다. 국민국가 형성기의 이데올로기로서 현모 논리가 작동됨으로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2세를 튼튼히 키워 군사력 증진에 기여하는 어머니로 변용시켜야 했다. ‘여성=모성’이라는 등식으로 가족의 생존을 유지시켜야 하는 모성으로서 실제적인 가족부양자, 남성과 같은 책

무를 부여 받아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았다’⁸⁾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中日戰爭)’ 다음해에 제정된 제3차 조선교육령 ‘고등여학교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사회의 진운에 순응하는 황국여성의 양성’의 목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교육여자수신서』 권1 제9과 ‘지능(知能)과 덕기(德器)’에는 다시 현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지식이 없으면 사물의 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무턱대고 세상의 떠도는 말을 믿거나 미신에 빠져서 반성도 못하고 결국에는 몸을 망치고 일가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여자로서 중요한 기능은 재봉, 요리, 세탁과 같은 가사를 위한 기술입니다. 주부된 자가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켜 나아가지 못한다고 가정의 불행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부된 자의 가사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신 교과서에는 특히 ‘부도(婦道)’에 관한 글이 많다. 권3 제10과와 권4 제12과에 ‘국민정신과 부도’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 가르침에 「여자에게는 3종의 도리가 있다.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어머니가 되어서는 자식을 따른다.」 고 합니다. 서양에서 온 개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그러면 여자의 일생은 사람의 노예로, 독립할 때가 없다. 현대의 부인은 이런 굴종적인 도덕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따른다’는 글자에 현혹되어 가르침의 참 뜻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로부터 부인은 속이 좁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부인의 생활이 대부분 가정내에 한정되어 있어 넓은 세상을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남존여비의 풍조가 있어, 여성의 귀와 눈을 열고 재능과 지성을 쌓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의 글들을 살펴보면 얼핏 부인의 길을 강요하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변화된 풍조를 느낄 수 있다. 먼저 권3 제10과의 글은 ‘서양에서 온 개인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1920년대까지 일본에서 새로운 사조로 등장한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 이후 민본주의의 발전과 자유주의적인 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차별로부터 해방, 자유, 평등을 요구하며, 자유로운 교육을 요구하는 풍조가 이미 자리잡은 시기였기에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여성들이 이러한 기존의 사상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이어지는 권4 제12과의 내용은 예로부터 부인들의 생활은 가정 내에 한정되어 있고, 남존여비의 풍조가 있어 새로운 지식을 쌓을 기회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글로 새로운 시대의 여성들에게 달라진 시대에 적응하며 재능과 지식을 쌓아 가기를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본 발표에서는 일제강점기 중등교육 여자용 교과서를 통해 여성의 부덕(婦德)과 계발(啓發)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러한 여성 사상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8) 김순진, 장미경(2007) 「전시하 『중등교육여자수신서』에 나타난 여성교육 정책」 『일본어문학』 39, 일본어문화회, pp.20-21.

그 결과, 초기의 중등교육 여자용 국어 교과서에는 ‘여자는 양처가 되고 현모가 되어 그 임무를 다하는 존재’라고 여겼다. 그러한 사조가 1920년대까지 계속되며 유교적 순응주의를 당연시하는 여성상이 등장한 것에 비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일하는 여성,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을 통해 향상된 여성 인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숙녀론, 여성론’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여성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어 교과서에는 독립적이며,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신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시대가 흘러도 그 사조는 변하지 않았다.

수신 교과서에는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교육과 여성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성상을 제시하며 책무와 본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달라진 시대에 적응하며 재능과 지식을 쌓아 자신의 가정의 행복을 유지해 가는 강인한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시기의 중등교육 여자용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로 쓰여진 국어독본과 수신서에 비해 조선어 교과서의 경우가 보다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것은 국어독본과 수신서가 당시의 일본 현지의 교과서 내용을 다수 차용하였기 때문으로, 국어와 수신에서 강조하는 여성 담론은 당시 일본의 여성 담론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미경(2021) 「식민지 조선에 대한 사치 담론에 대한 여성의 대응과 의의」 『한국문화연구』 4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p.40.
- 김수자(2015) 「1920, 1930년대 <신여성>여성기자의 여성담론 구성방식-허정숙과 송계월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74, 한국근현대사학회, pp.127-155.
- 김순전, 장미경(2007) 「조선총독부 발간 『여자고등보통학교수신서』의 여성상」 『일본학연구』 2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173.
- _____ (2007) 「전시하 『중등교육여자수신서』에 나타난 여성교육 정책」 『일본어문학』 39, 일본어학회, pp.20-21.
- 김영민(2016) 「한국 근대 초기 여성담론의 생성과 변모-근대 초기 신문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223-260.
- _____ (2016) 「한국 근대 초기 여성담론의 생성과 변모(2)-근대 초기 잡지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0, 한국문학연구학회, pp.129-173.
- 김혜련(2008) 『식민지기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p.166.
- 배경열(2008) 「일제 치하 식민지 근대화 여성교육 담론」 『현대문학이론연구』 34, pp.406-409.
- 이영규(2021) 「일제강점기 여성교육과 가정개량 담론에 관한 일고찰」 『일본근대학연구』 71, 한국일본근대학회, pp.181-196.
- 이선이(2011) 「근대 중국과 일본의 언론매체에서 보이는 조선여성 표상 연구」 『동양사학연구』 116, 동양사학회, p.255.
- 이행화, 이영규(2017) 「일제강점기의 직업여성에 관한 담론」 『일본근대학연구』 57, 한국일본근대학회, pp.195-208.
- 황수연(2021) 「식민지 지식인의 신여성 담론-『(명원)신여성보감』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pp.307-349.
- 국사편찬위원회(2005)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 열정』, (주)두산동아, p.310.